

# 2017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국어 영역 •

### 국어 정답

1	㉔	2	㉔	3	㉔	4	㉔	5	㉔
6	㉔	7	㉔	8	㉔	9	㉔	10	㉔
11	㉔	12	㉔	13	㉔	14	㉔	15	㉔
16	㉔	17	㉔	18	㉔	19	㉔	20	㉔
21	㉔	22	㉔	23	㉔	24	㉔	25	㉔
26	㉔	27	㉔	28	㉔	29	㉔	30	㉔
31	㉔	32	㉔	33	㉔	34	㉔	35	㉔
36	㉔	37	㉔	38	㉔	39	㉔	40	㉔
41	㉔	42	㉔	43	㉔	44	㉔	45	㉔

### 해설

#### 1. [출제의도] 진행자의 역할을 이해한다.

진행자는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대담자에게 질문하고 확인함으로써, 대담을 원활하게 이끌어가거나 청취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대담에서는 진행자가 질문을 통해 자신이 대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질문하며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진행자는 첫 번째 발언에서 대담에서 다룰 내용으로 최근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는 말을 통해 대담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하며 대담을 시작하고 있다. ② 진행자는 ‘먼저 김 과장님’, ‘그럼, 최 교수님’, ‘그러면 김 과장님’,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서 먼저’와 같은 말을 통해 대담자를 직접 지정하여 발언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③ 김 과장이 첫 번째 발언에서 동전을 제조, 유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을 하자 진행자는 자신의 두 번째 발언에서 김 과장에게 동전 제조나 유통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④ 진행자는 김 과장과 최 교수의 발언을 들은 후에 자신의 네 번째 발언에서 동전을 없애면 ‘동전의 제조, 유통 등과 관련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김 과장과 최 교수의 공통된 의견을 언급하며 대담을 이어가고 있다.

#### 2. [출제의도] 대담자가 활용한 말하기 전략을 파악한다.

진행자가 동전을 없애면 불편을 겪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며 문제점을 언급하자, 최 교수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드에 거스름돈을 충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와 같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자가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진행자가 언급한 문제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진행자가 언급한 내용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김 과장은 자신의 첫 번째 발언에서 ‘46.9%가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② 최 교수는 자신의 첫 번째 발언에서 동전을 없애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김 과장과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③ 김 과장은 자신의 세 번째 발언에서 가격 경쟁 심화와 동전 교환 및 관리 비용의 절감이라는 경제적 요인을 근거로 삼아,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는 최 교수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⑤ 최 교수가 거스름돈을 카드에 충전해 줄 경우 카드를 사

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자, 김 과장은 자신의 네 번째 발언에서 ‘□□도’와 ‘△△시’의 교통 카드 사용률에 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하고 있다.

#### 3. [출제의도] 대담의 내용에 맞게 추가 질문한다.

공지 사항의 내용이 ‘출연자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을 올려 주세요.’이므로, 이미 동전 없는 사회를 실현한 나라들도 있다는 김 과장의 발언에 대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질문한 ③과 같은 질문이 진행자가 선정할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대담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려는 의도이므로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최 교수가 마지막 발언에서 동전을 없앨 경우 거스름돈을 카드에 충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거스름돈을 어떻게 받는지 묻는 질문은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대담에서는 동전 없는 사회, 즉 동전을 없애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 지폐로 사용하고 있는 1,000원짜리를 동전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지 묻는 질문은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대담에서 500원짜리 동전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500원짜리 동전이 예전에는 지폐였다는 질문은 추가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 4. [출제의도] 발표 계획이 실제 발표에 반영되었는지 판단한다.

발표 계획에서는 ‘청중과 함께했던 추억을 환기하며 발표를 시작해야겠어.’라고 되어 있으나, 발표에서는 청중과 함께했던 추억이 아닌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위바위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를 결정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③ 반언어적 표현은 소리의 세기, 어조, 속도 등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발표에서는 ‘(큰 목소리로)’, ‘(더 큰 목소리로)’와 같이 목소리의 세기를 크게 하는 반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들이 가위바위보를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④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⑤ ‘여러분은 일상에서 순서를 정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혹시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와 같이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살피며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 5. [출제의도]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을 추론한다.

발표 내용 중에서 ‘승유패변의 법칙’은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은 다음 판에서도 같은 것을 낼 확률이, 비기거나 진 사람은 다음 판에서 다른 것을 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A는 둘째 판에서 보를 내서 졌기 때문에 셋째 판에서 가위나 주먹을 낼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만약 B가 셋째 판에서 가위를 낸다면, A에게 비기거나 질 확률이 높다.

[오답풀이] ① 연구 결과 사람들은 처음에 바위를 낼 확률이 높는데, A와 B가 첫째 판에서 모두 바위를 낸 것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승유패변의 법칙’에 따르면 비기거나 진 사람은 다음 판에서 냈던 것을 바꿀 확률이 높다. A와 B는 첫째 판에서 주먹으로 비겼으므로, A가 둘째 판에서 보를 낸 것은 이에 부합한다. ③ ‘승유패변의 법칙’에 따르면 이긴 사람은 다음 판에서 냈던 것을 다시 낼 확률이 높다. B는 둘째 판에서 가위를 내서 A에게 이겼으므로 셋째 판에서는 가위를 다시 낼 확률이 높다. ⑤ 가위바위보 전략 중 자기가 낼 것을 미리 말한 뒤 똑같은 것을 내는 방법이 있다. 사람들이 상대방이 내겠다고 한 것을 믿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A가 둘째 판을 시작할 때 보를 낼 것이라고 미리 말했다면, B는 보를 이기는 가위가 아닌 바위나 보를

낼 확률이 높다.

#### 6. [출제의도] 글에 작문 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판단한다.

작문 상황은 ‘문학 기행에 대한 감상을 학교 누리집 동아리 활동란에 쓰기 위해 작문 계획을 세우고 감상문을 작성함.’이다. 학생의 초고에는 문학 기행을 하게 된 동기, 기행지에서의 장소 이동에 따른 견문과 감상, 기행지의 지리적 특성, 기행지와 관련된 인물과 문학 작품 등과 관련된 작문 계획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 유적으로의 기행지의 보존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청령포의 단종 어가에서 밤이 되면 두려움과 외로움에 슬피 울었던 단종의 일화, 해질 무렵이면 노산대에 올라 한양 쪽을 보면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일화, 이문구의 장편 소설 「매월당 김시습」에 등장하는 엄홍도가 출입을 급하는 명을 어기고 해엄처 강을 건너가 단종을 뵈었다는 내용, 그리고 왕방연의 시조를 인용한 내용에서 기행지와 관련된 인물과 문학 작품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② 초고의 둘째 문단에서 ‘청령포는 서강이 삼면을 휘돌아 흐르고, 한쪽이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어 배를 타지 않고는 드나들 수 없는 곳이다.’와 같이 청령포의 지리적 특성을 묘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초고의 첫째 문단에서 동아리에서 이문구의 소설을 읽고 토의를 하다가 청령포에 직접 찾아가서 당시 단종의 슬픔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껴보고자 했다는 기행 동기를 밝히고 있다. ⑤ ‘소나무 숲 산책길’, ‘단종 어가’, ‘노산대’, ‘망향대’ 등 장소 이동에 따라 글쓴이의 견문이나 감상을 밝히고 있다.

#### 7. [출제의도]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글을 바르게 고친다.

㉠의 ‘마치게 되었다’는 주어인 ‘청령포는’과 호응이 되지 않는데, 이를 ‘마쳤다’로 수정해도 역시 호응이 되지 않는다.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을 고려해서 ‘마친 곳이다’로 고쳐야 호응이 되어 올바른 문장이 된다.

[오답풀이] ② ㉠의 ‘설레인다’는 어법에 잘못된 표현이므로 기본형 ‘설레다’를 고려하여 ‘설렌다’로 고쳐 쓴다. ③ ㉡의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저 앞으로 단종 어가가 보인다.’라는 문장과 의미 관계를 고려했을 때,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런데’가 적절하다. ④ ㉢의 ‘같다라고’에서 ‘라고’는 직접 인용을 할 때 사용하는 조사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영월의 호장 엄홍도 같다.’는 문장을 간접 인용하고 있으므로 ‘같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⑤ ㉣의 ‘붉은 노을을 ~ 눈에 선했다.’는 단종이 붉은 노을을 보면서 정순왕후와 이별했는지, 단종이 붉은 노을을 보면서 정순왕후를 그리워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중의적인 문장이다. 그러므로 ‘보면서’ 뒤에 반점(.)을 추가하면 단종이 노산대에 올라 붉은 노을을 보면서 정순왕후를 그리워했다는 의미로만 해석되므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8.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글을 쓴다.

‘소설 속 단종의 슬픔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던 청령포 기행’에는 문학 기행이 갖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단종의 예사에 슬픔을 느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그날의 강물은 여전히 슬피 울며 흐르고 있었다.’에는 자연물인 ‘강물’을 통한 감정이입이 담겨 있다.

[오답풀이] ① ‘소쩍, 소쩍, 소쩍새가 슬피 우는 곳’에는 감정이입이 드러나지만 ‘서쪽의 한양을 ~ 청령포를 떠나왔다.’에는 문학 기행이 갖는 의미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청령포에 가면 ~ 담아 볼 수 있다.’에는 문학 기행의 의미가 드러나지만, ‘한양을 그리워하며

~홀리던 곳’에는 감정이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자연의 아름다움과 ~ 맡아 보길 바란다.’에는 문학 기행의 의의가 드러나지만, ‘청령포는 맑은 물이 ~ 있다는 뜻이다.’는 ‘청령포’라는 지명에 담긴 의미를 풀이한 것으로 감정이입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그 곳에 가면 ~ 갖게 될 것이다.’에는 문학 기행의 의의가 담겨 있지만, ‘단종의 슬픈 ~ 알고 있는가?’에는 감정이입이 나타나 있지 않다.

9. [출제의도] 검토 항목에 따라 글의 내용을 검토한다.

학생은 학교 신문 편집부의 요청 사항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오투오 서비스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뒤, 기사 검토 항목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 학생이 작성한 기사의문의 ‘본문’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택시를 부르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것 등’의 오투오 서비스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 제재의 사례를 소개하라는 검토 항목에는 ‘예’ 부분에 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표제’인 ‘오투오 서비스의 개념과 등장 배경’은 ‘본문’의 첫째 문단에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표제’는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②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오투오 서비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과 같은 핵심 내용이 ‘전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 ③ ‘본문’의 첫째 문단에 오투오 서비스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⑤ ‘본문’의 다섯째 문단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에서 오투오 서비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10.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수정한다.

(나)에서는 수수료와 관련하여 법규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다)에서는 오프라인 산업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규가 오투오 서비스에 제약이 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와 (다)는 오투오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규제의 완화가 오투오 서비스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전체 조건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1은 업체별로 오투오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므로 이를 오투오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② (나)는 수수료 문제로 오투오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오투오 서비스 운영 업체 간에 마찰이 일어난다는 인터뷰이다. ③ (다)에서는 오투오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오투오 서비스 운영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오투오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면서 오투오 서비스 운영 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④ (가)–2에서는 오투오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중 ‘서비스의 질적 저하’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나)에서는 수수료 마찰로 인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이 두 자료를 활용하여 오투오 서비스 질적 저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와 운영 업체 간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음운 변동 현상을 바르게 이해한다.

‘맨입’은 ㄴ 첨가가 일어나 [맨닙]으로 발음되고, ‘국민’은 비음화가 일어나 [궁민]으로 발음된다. ㄴ 첨가와 비음화가 모두 일어나는 단어는 ‘막일’이다. ‘막일’은 ㄴ 첨가를 통해 [막닐]로, 비음화를 통해 [망닐]로 발음된다.

[오답풀이] ② ‘담요’는 [담:뇨]로 발음되어 ㄴ 첨가만 일어난다. ③ ‘낙엽’은 연음을 통해 [나곶]으로 발음된다. 참고로 연음은 음운 변동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곡물’은 [궁물]로 발음되어 비음화만 일어난다. ⑤ ‘강약’은 [강약]으로 발음되어 음운 변동 현

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12. [출제의도] 단어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탐구 관련 지식’을 고려할 때, 문장 성분의 경우 ㉠, ㉡은 체언인 명사 ‘글’을 한정하고 있고, ㉢, ㉣은 용언인 동사 ‘달린다’를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장 성분에 따라 분류할 때, ‘㉠, ㉡’(관형어)과 ‘㉢, ㉣’(부사어)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품사의 경우 ㉠, ㉣은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은 명사 ‘글’을, ㉢은 동사 ‘달린다’를 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품사에 따라 분류할 때, ‘㉠, ㉢’(형용사), ‘㉡’(관형사), ‘㉣’(부사)로 구분할 수 있다.

13. [출제의도] 잘못된 언어 표현을 바르게 고친다.

‘깨달은’의 어간을 ‘깨달-’이 아닌 ‘깨달-’로 잘못 파악하면 ‘-은’을 잘못 붙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깨달은’은 어간 ‘깨달-’에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 형성된 단어로, 어간의 끝소리가 ‘ㄹ’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간의 끝소리 ‘ㄷ’이 ‘ㄹ’로 바뀐 것은 ㄷ 불규칙에 의한 것으로, ‘깨달은’은 옳은 표기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성조에 대해 파악한다.

중세 국어에서는 각 글자의 원편에 점을 찍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아·나·뵈·씩’에서 ‘아’는 점이 없으므로 낮은 소리(평성), ‘나’와 ‘씩’는 점이 한 개이므로 높은 소리(거성), ‘뵈’는 점이 두 개이므로 처음은 낮고 나중에 높은 소리(상성)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할 때 ㉣은 ‘평성-거성-상성-거성’으로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할 수 있다.

15. [출제의도] 남북한의 국어사전을 비교·탐구한다.

(가)의 ‘뽀’은 의존 명사와 조사, (나)의 ‘뽀’은 불완전명사(의존 명사)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와 (나)의 ‘뽀’은 모두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는 말로, 자립하여 쓰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가)의 ‘뽀<sup>01</sup>’은 앞에 오는 말과 띄어 쓰이고 있지만, (나)의 ‘뽀’은 앞에 오는 말과 붙여 쓰이고 있다. ② (가)의 ‘뽀<sup>01</sup>’과 (나)의 ‘뽀’은 각각 (1)과 (2)의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내가 가진 것은 이것뽀이다.’에서 ‘뽀’은 ‘그 것만이고 더는 없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가)의 ‘뽀<sup>02</sup>’, (나)의 ‘뽀’ (1)의 뜻에 해당한다. ④ (가)에서는 용언 뒤의 ‘뽀’은 의존 명사, 체언 뒤의 ‘뽀’은 조사로 보아 서로 다른 표제어 ‘뽀<sup>01</sup>’, ‘뽀<sup>02</sup>’로 등재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모두 불완전명사로 보아 하나의 표제어 ‘뽀’으로 등재하고 있다.

[16~18] (현대 소설) 송기원, 「다시 월문리에서」

1980년대 ‘월문리’라는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하여 작가의 실제 경험을 소설의 형식으로 형상화한 연작 소설이다.

여자로서 드센 팔자를 타고난 어머니는 아버지가 서로 다른 남매를 또 다른 의붓아버지 밑에서 장돌뱅이를 하며 힘들게 키운다. 어머니는 정치 사범으로 독방에 갇힌 아들을 친자식임에도 법적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도 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은 어머니를 화병에 이르게 했고, 결국 어머니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게 된다.

‘나’는 독방에 있을 때 어머니의 죽음을 전해 듣게 되고, 독방에서 나가게 된 후에 비로소 ‘월문리’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을 찾는다. 그러나 어머니가 화병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나’는 어머니가 자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충격으로 방황의 시간을 보낸다. 이후에 ‘나’는 다시 ‘월문리’로 돌아와 어머니의 산소와 폐가를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기구했던 삶을 돌아보고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한을 풀어 가면서, 마음속에서 ‘어머니’와 화해에 이르고 있다.

16.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체험을 진술하고, 그와 관련된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소설은 여러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장면의 서술자는 항상 ‘나’로 서술자가 교체되지 않는다. ④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장면이 교차하기 때문에 순행적 구성이라 볼 수 없다. 또한 그를 통해 갈등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⑤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므로,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사건의 전모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보기>의 설명에 의하면, ‘나’는 다시 ‘월문리’에 돌아와 어머니 산소와 폐가를 정리하는 행동을 통해 기구한 어머니의 삶과 한을 받아들이며 ‘나’의 한을 풀어 가게 된다. 그런데 ③에서 ‘나’가 독방에 있을 때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며 단식하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이므로, 이를 ‘나’가 어머니의 한을 받아들이며 ‘나’의 한을 풀어 내려는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빠가 다른 남매’란 아버지가 서로 다른 자식들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자식들을 또 다른 의붓아버지 그늘에서 키울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인생을 통해 어머니가 기구한 삶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나’가 독방에 있을 때 어머니는 법적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가 금지되는데, 그 이후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신다는 내용에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한을 짐작해 볼 수 있다. ④ ‘나’는 다시 월문리에 돌아와 어머니의 폐가와 산소를 정리하고 어머니의 잠자리 옆에 누워 마치 어머니와 ‘한 몸’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이는 ‘나’가 어머니의 삶을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나’는 어머니의 기구했던 삶을 돌아보며 그녀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한을 풀어 가게 된다. 그것은 마지막 부분의 ‘나’의 꿈에서 나타나는데, 꿈속의 ‘젊은 여자’를 ‘나의 새로운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나’가 마음속에서 어머니와 화해를 이루었음을 엿볼 수 있다.

18. [출제의도] 핵심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나’가 폐가를 정리하고 밤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나’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에 대해 그리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낙숫물 소리’는 ‘나’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재로, 어머니로 인해 겪었던 ‘나’의 고달픈 경험을 연상하게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는 독방에서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어머니를 떠올리며 지난 삶을 되돌아본다. ② ‘나’는 육자배기 가락을 부르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어머니의 노랫소리’는 ‘나’에게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애달픈 심정을 환기하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③ 답답한 마음을 안고 다시 월문리를 찾은 ‘나’가 어머니 산소 주위에 있는 아카시아 숲에 답답함을 느끼며 이를 치내면서 어머니로부터 심리적 위안을 얻는 것으로 보아, 아카시아 숲은 ‘나’의 답답한 심정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④ ‘나’는 어머니의 잠자리였던 곳에 누우면서 어머니와 ‘한 몸’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아랫목’은 어머니의 자취를 느끼며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19~21] (고전시가 수필 복합) (가) 허난설헌, 「빈녀

음(貧女吟)」 / (나) 백석, 「편지」

(가) 허난설헌, 「빈녀음(貧女吟)」

가난한 여인의 노래라는 의미를 지닌 작품으로, 외모와 바느질 솜씨가 손색없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밤낮 없이 생계를 위해 베 짜고 옷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화자가 시집가는 다른 여인의 처지와 대비를 통해 고달프고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나) 백석, 「편지」

‘당신’으로 불리는 청자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수필로서, 정월 대보름 밤에 회상을 하는 현재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첫 번째 회상으로 수선화를 닮은 연인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회상으로 정월 대보름 밤, 고향 색시들의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첫 번째 회상, 즉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개인 서사로서의 추억은 두 번째 회상인 과거 정월 대보름 고향 마을의 풍속에 대한 공동체 서사로의 기억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서사를 장면화한 것은 그것이 지닌 생명력에 관심을 두고 부각한 것인데, 이를 통해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풍속과 민족 정서를 복원하고 재현하며 어울림의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19.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삐걱삐걱’, ‘썉둑썉둑’과 같은 음성 상징어로 처량하고 고달픈 상황을, (나)에서는 ‘찰락찰락’, ‘재깍재깍’, ‘끼득끼득’ 등의 음성 상징어로 색시들의 움직임이 생명력 넘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시선의 이동을 활용한 대상의 특징 묘사는 찾아볼 수 없다. ② (가), (나) 모두 주체와 객체를 전도시켜 삶의 덧없음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③ (가), (나) 모두 이상에 대한 열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 (나) 모두 연쇄적 표현은 활용되지 않았다.

20. [출제의도] 시어를 통한 시상의 흐름을 파악한다.

(가)에서 ‘베틀에 짜여가는 이 한 필 비단’이 끝내 화자의 것이 되지 못하고 ‘어느 색시’의 옷이 되므로, 화자가 ‘옷감을 마르느’ 힘겨운 일상에 위안을 준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시집도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베만 짜고 있다고 하고 있다. ② 가난해서 좋은 중매 자리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시집도 가지 못하고 누군가를 위한 옷을 만들면서 해마다 홀로 자고 있다고 하고 있다. ③ 하루 종일 베만 짜야 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 어떤 이웃도 알아주지 않는데, 베틀 소리가 처량하게 운다고 함으로써 화자 자신의 마음(처량함)을 베틀에 투영하여(우는 것) 표현한 것이다. ⑤ 화자 자신은 시집도 가지 못하면서 시집가는 누군가를 위해 길옷을 만드는 처지인데, 어느 색시는 화자가 짜주는 비단으로 만든 옷의 주인이 되므로, 처지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서글픔을 심화시키고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 전반을 감상한다.

㉔의 ‘그’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개인적인 그리움의 대상에 대한 애틋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고, ㉕의 ‘새악시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민족 공동체의 풍속을 생명감 넘치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화제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만 애상적인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당신께서 보내주신 ‘수선화 한 폭’을 들여다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오르고 노란 슬픔이 냇내같이 오른다고 하면서 노란 슬픔의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글쓴이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추억으로 이어주는 매개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알록달록 각시’ 또한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에 있는 데로 가 형뻘이나 얻어서 만들면서 육보름날 밤과 관련된 기억 속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에 내재된 기억으로 이어주는 매개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마지막 문장의 ‘병든 내 사람’은 첫 번째 회상인 노란 슬픔의 이야기에서 시들어 가는 ‘수선’이라고 표현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노란 슬픔’에서 환기되는 애틋한 슬픔의 이미지와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에서 열거하고 있는 풍속은 기억 속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시골 육보름 밤의 이야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밤입니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로 반복해 표현함으로써 그러한 것들의 복원과 재현이 현재에도 가능하다는 것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2~25] (기술) 오세진, 「스피커 총론」

스피커는 북을 쳤을 때 가죽이 진동을 하고 이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것과 같은 원리로 진동판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재생한다. 다이내믹 스피커는 영구 자석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과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상호 작용에 의해 보이스 코일에 작용하는 힘을 활용하여 진동판이 진동한다. 보이스 코일에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교류 전류가 흐른다. 이에 따라 보이스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상하로 반복하게 된다. 영구 자석에서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집게손가락의 방향)은 일정하지만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교류의 전류의 방향(가운뎃손가락의 방향)은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전환되어 보이스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엄지손가락의 방향) 또한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뀌며 작용하는 힘이 보이스 코일에 작용하여 보이스 코일이 움직이고 이 움직임이 보빈을 통해 진동판에 전달되어 진동판이 진동하며 소리가 재생된다. 이때 진동수가 커서 진동판이 빠르게 진동하면 높은 음이, 진동수가 작아서 진동판이 느리게 진동하면 낮은 음이 재생된다. 그리고 전류가 세서 진동판이 강하게 진동하면 강한 소리가, 약하게 진동하면 약한 소리가 난다.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보이스 코일에 작용하는 힘은 영구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한다. 즉, 보이스 코일에 작용하는 힘은 그 상호 작용의 결과로 생성되는 것이지 그 상호 작용을 유도하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① 셋째 문단 끝부분에서 폴피스가 전류가 흐르면서 보이스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혀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한 내용에서 전류가 보이스 코일에서 열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보빈은 보이스 코일에 감겨 있는 부품으로 보이스 코일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인다. 그러므로 보이스 코일이 움직이는 방향과 보빈이 움직이는 방향은 동일하다. ③ 영구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동일하므로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전환이 계속됨에 따라 상하로 반복되는 힘이 발생하여 진동판이 진동을 한다. 그러므로 전류의 방향이 동일하면 상하 반복 운동이 발생하지 않아 진동판이 소리를 재생할 수 없다. ④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이스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면 영구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상호 작용하여 보이스 코일에 힘이 작용한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넷째 문단에서 영구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보

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보이스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다.

**[오답풀이]** ① 댐퍼는 스피커의 외형을 이루는 단단한 프레임에 보빈을 지지시켜 보빈에 감겨 있는 보이스 코일이 위아래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보이스 코일의 중심을 잡아 주는 기능을 한다. ② 탑 플레이트는 영구 자석에서 의해 형성된 자기장을 보이스 코일 방향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④ 보빈은 보이스 코일과 진동판을 연결하는 부품이다. 보빈에는 보이스 코일이 감겨 있어서 보이스 코일의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이며 진동판을 진동시킨다. ⑤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따라 알 수 있듯이 보이스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전환되고, 이 전환된 방향의 힘에 의한 운동이 보빈에 전달된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를 통해 이퀄라이저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의 음을 세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소리의 크기는 보이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질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음 대역을 소리를 크게 하려면 저음 대역에 해당하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해야 한다.

25.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재생’의 사전적 의미는 ‘녹음·녹화한 테이프나 필름 따위로 본래의 소리나 모습을 다시 들려주거나 보여줌.’이다. ①의 내용은 ‘파생’의 사전적 의미로 ‘재생’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26~28] (사회) 서승환, 「미시 경제학」

소비자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택이 항상 확실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의 행위 결과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이론이 불확실성 하의 선택이론이다.

금융 상품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은 기대효용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소비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해당 상품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댓값인 기대 효용을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기대 효용에 대해 소비자가 보이는 태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위험 추구형, 위험 회피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소비자가 화폐에 대하여 느끼는 한계효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공에 의한 한계효용의 증가를 실패에 의한 한계효용의 감소보다 더 크게 느끼면 위험 추구형이 되고, 그 반대는 위험 회피형이 된다.

금융회사들은 이와 같은 소비자의 투자 성향의 차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좀 더 적합한 투자 상품을 안내하여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고, 금융회사의 이익도 함께 추구하게 된다.

26. [출제의도] 글의 사실적 정보를 확인한다.

제시문은 금융 투자에서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판단하는 것과 그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 차이를 서술한 글이다. 이 지문에서는 투자 상품의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금융 상품의 유형으로 주식, 예금, 채권 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② 2문단에 의하면 기대 효용이란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기댓값으로, 투자 수익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과 투자 손실에 그것이 발생할 확률을 곱한 값의 총합을 의미한다. ③ 2문단에서는 투자 성향의 판단 기준으로 기대 효용에 대한 고객의 태도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④ 5문단에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고객의 투자 성향을 분류하는 효과를 고객 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하여 더 많은 고객과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를 추론한다.

㉠은 위험 추구형 투자자에 대한 진술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의 투자자는 투자 실패로 인한 불만족보다 투자 성공으로 인한 만족을 더 크게 인식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향의 투자자는 화폐량이 a에서 a+1로 증가할 때의 한계효용이 a에서 a-1로 줄었을 때의 한계효용보다 더 큰 경우이다. ①의 그래프에서 a에서 a-1로 감소할 때의 한계효용은 5-2=3이고, a에서 a+1로 증가할 때의 한계효용은 15-5=10이다. 따라서 a 전후의 한계효용이 3에서 10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위험 추구형의 그래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③은 화폐량이 증가하면서 효용이 감소하기 있기 때문에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④는 화폐량이 변화하는데, 효용이 6으로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계효용이 0이다. ⑤는 화폐량이 a에서 a+1로 증가할 때의 효용의 증가분(15-10=5)과 a에서 a-1로 감소할 때의 효용의 감소분(10-5=5)이 5로 동일하다. 즉, 투자 이전과 이후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므로 위험 추구형 성향을 드러내는 투자자의 그래프 형태로 볼 수 없다.

2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A 상품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20 %이므로 투자 실패의 확률이 80 %이고, B 상품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40 %이므로 투자 실패의 확률이 60 %이다. 따라서 A 상품의 투자 실패 확률이 B 상품의 투자 실패 확률보다 더 크다. 그런데 투자 실패 확률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요소이므로, 두 상품의 실패 확률에 대한 평가는 ‘갑’과 ‘병’이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병’이 ‘갑’과 달리 A상품이 B상품보다 투자 실패 확률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풀이] ① ‘갑’은 B 상품을 선택하였으므로 위험 추구형 투자자이다. ‘병’은 현금 보유를 선택하였으므로 위험 회피형 투자자이다. 따라서 ‘갑’은 ‘병’에 비해 위험성이 있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을’은 ‘갑’과 마찬가지로 위험 추구형 투자자이다. 따라서 둘 다 화폐를 보유하기보다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 효용을 선택한 것이다. ③ ‘을’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20 %로 낮음에도 450만 원이라는 큰 수익을 얻는 A 상품을 선택하였고, ‘갑’은 수익을 얻을 확률이 40 %로 좀 더 높고, 그 대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200만 원으로 더 낮은 B 상품을 선택하였으므로 ‘을’이 ‘갑’보다 위험을 더 추구하는 성향으로 볼 수 있다. ⑤ ‘병’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이고, ‘을’은 위험 추구형 투자자이다. 4문단의 내용에 의거하여 ‘을’은 투자 성공에 의한 한계효용이 증가하는 경우이고, ‘병’은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병’은 ‘을’에 비해 투자 성공의 만족보다 투자 실패의 불만족을 더 크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29 ~ 34] (인문) 박병철, 『쉽게 읽는 언어 철학』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전통 논리학이 명제 논리학과 술어 논리학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전통 논리학은 정언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문장 내의 대명사, 소명사, 증명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논리학이다. 이와 달리 명제 논리학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인 명제들을 대상으로, 단순 명제들의 진릿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하여 복합 명제의 논리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논리학이다. 명제 논리학이 이후 술어 기호를 사용하여 명제 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

는 술어 논리학으로 발전하면서 논리학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29. [출제의도] 글 전체의 흐름을 파악한다.

3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화한 전통 논리학에서 20세기 프레게의 명제 논리학, 그리고 이후 술어 논리에 이르기까지 논리학이 발전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오답풀이] ② 마지막 문단에서 명제 논리학과 술어 논리학을 중심으로 논리학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③ 논리학의 흐름에 대한 글로서 논리학의 특징을 인접 학문과 비교하여 분석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30.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정언 문장이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주어-술어’로 이루어진 다음의 네 가지 형식의 문장을 말한다. 논증의 문장 형식에는 ‘모든 A는 B이다.’, ‘모든 A는 B가 아니다.’, ‘어떤 A는 B이다.’, ‘어떤 A는 B가 아니다.’가 있다.

[오답풀이] ① 연역 논증은 결론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는 형식의 논증을 말한다. ② 전통 논리학에서는 정언 문장을 대명사, 소명사, 증명사로 나누어서 명사 단위로 분석하였다. ④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의 내적 논리 구조를 분석하지 않고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 단위로 삼는다. ⑤ 술어 논리학은 술어 기호를 사용하여 명제 내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논리학이다.

3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한다.

ㄴ의 <전제1>인 ‘민수는 일하거나 논다.’는 ‘p∨q’, <전제2>인 ‘민수는 일하지 않는다.’는 ‘~p’로 기호화하여 나타낼 수 있는데, 둘 다 단순 명제와 논리적 연결사로 이루어진 복합 명제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죽는다’와 같은 동사는 ‘죽는 존재’와 같이 명사로 나타낼 수 있다. ② 전제에만 있으면서 전제들을 엮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증명사(M)라 하고,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을 소명사(S)라 한다. ③ ‘만약 생명체라면 죽는 존재이다.’에서 ‘생명체이다.’는 ‘p’, ‘죽는 존재이다.’는 q에 해당하므로 이 둘을 연결하면 ‘p→q’와 같은 복합 명제가 된다. ⑤ ‘민수는 일하거나 논다.’를 기호화하기 위해서는 ‘∨’에 해당하는 논리적 연결사가 필요하다.

3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다.

정언 삼단 논증에서 증명사(M)는 전제들 사이에서 소명사(S)와 대명사(P)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전제1>과 <전제2>에 모두 나타나야 한다. 그런데 ④번은 <전제1>에만 증명사(M)가 있고, <전제2>에 증명사(M)가 없으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명명한 가능한 정언 삼단 논증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한다.

전진 긍정이란 <전제1>이 p→q일 때, <전제2>에서 <전제1>의 선행 조건인 p를 긍정함으로써 <결론>에서 q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논증이다. <전제2> ‘교실 청소가 끝났다.’는 <전제1>의 ‘교실 청소가 끝나면 집에 갈 수 있다.’의 선행 조건을 긍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결론>인 ‘그러므로 집에 갈 수 있다.’를 도출하고 있으므로 이는 전진 긍정의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전제2>의 ‘차가 달린다.’는 <전제1>의 선행 조건을 부정하고 있다. ② <전제2>의 ‘그것이 죽는다.’는 <전제1>의 후행 조건을 긍정하고 있다. ③ <전제2>의 ‘아직 가뭄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1>의 후행 조건을 부정하고 있다. ⑤ <전제2>의 ‘철수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전제1>의 선행

행 조건을 부정하고 있다.

34.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이해한다.

‘AND 게이트’는 ‘A’와 ‘B’의 입력값이 모두 ‘1’일 때에만 출력값이 ‘1’이 되는 것으로, 이는 명제 논리학의 ‘p∧q’에 해당한다. ‘AND 게이트’에서 ‘Y’가 ‘1’인 것은 두 입력값이 모두 ‘1’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명제 논리학에서 두 명제의 진릿값이 모두 참인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논리 게이트의 입력 단자 ‘A’와 ‘B’는 각각 명제 논리학의 단순 명제에 대응되고, ‘A+B’에 해당하는 ‘Y’는 단순 명제가 결합된 복합 명제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② 논리 게이트는 ‘1’과 ‘0’의 이진법의 정보로 운영되는 전자 회로인데, 이는 명제 논리학에서 단순 명제의 진릿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해서 복합 명제의 진릿값이 결정되는 것에서 착안된 것이다. ③ ‘OR 게이트’는 ‘A’와 ‘B’의 입력값 중 하나 이상이 ‘1’일 때 출력값이 ‘1’이 되는 것이므로, ‘A+B’는 명제 논리학에서 사용하는 논리적 연결사 중에서 ‘∨’를 사용하여 기호화할 수 있다. ④ ‘OR 게이트’는 ‘A’와 ‘B’의 입력값 중 하나 이상이 ‘1’일 때 출력값이 ‘1’이 되는 것이다. 입력값 ‘1’이 명제의 진릿값이 참인 경우에, 입력값 ‘0’이 명제의 진릿값이 거짓인 경우에 대응되므로, ‘OR 게이트’는 두 명제 중 하나만 참일 때 결론이 참이 되는 경우와 대응될 수 있다.

[35 ~ 36] (예술) 양진숙, 이성미, 『부드러운 조각 예술의 혼합 매체에 관한 연구』

이 글은 섬유 예술의 개념과 섬유 예술이 조형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매김된 이유, 섬유 예술에서 활용되는 기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섬유 예술이 새로운 조형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매김한 결정적 계기는 1969년 ‘로잔느 섬유 예술 비엔날레전’에서 올덴버그가 가죽을 사용하여 만든 「부드러운 타자기」라는 작품이 주목을 받은 것이다. 이후 섬유 예술은 평면성에서 벗어나 조형성을 강조하기 위해 바스켓트리, 콜라주, 아상블라주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작가의 개성과 미의식을 구현하였다. 섬유를 오브제로 활용한 대표적인 작품인 라우센버그의 「침대」를 예로 제시하여 섬유 예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콜라주, 아상블라주 기법을 주로 활용하여 섬유의 조형적 미감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35.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세부적인 정보를 이해한다.

이 글은 섬유 예술이 실용성을 넘어 예술적 미감을 표현하는 순수 조형 예술로 자리 매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섬유 예술이 조형 예술의 궁극적 특징인 순수한 미의식을 탈피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섬유 예술은 올덴버그의 작품을 계기로 섬유를 예술성을 지닌 심미적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② 1969년 ‘로잔느 섬유 예술 비엔날레전’에서 전시된 올덴버그의 「부드러운 타자기」는 섬유 예술이 새로운 조형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매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③ 섬유 예술은 섬유를 오브제로 사용하여 예술적 조형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예술이다. ④ 바스켓트리에서는 꼬기, 엮기, 짜기 등 섬유 예술의 전형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예술적 조형성을 구현한다.

36.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는 섬유가 오브제로 활용된 대표적인 작품인 라우센버그의 「모노그램」을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콜라주는 평면적 조형성을, 아상블라주는 입체적 조형성을 표현하는 기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콜라주 기법이 주는 3차원적 입체성’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짐승의 털은 일종의 섬유이기 때문에



염소의 털이 활용된 점을 통해 섬유 예술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오브제란 일상 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불러 일으키는 대상을 의미한다. 이 작품에서 나무 조각이나 신발 굽, 염소, 타이어 등은 작가의 예술적 미의식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오브제라고 할 수 있다. ④ 아상블라주는 콜라주의 평면적인 조형성을 넘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과 폐품 등을 혼합하여 3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판넬에 염소를 세워 놓음으로써 3차원적 입체감을 드러낸 것에서 아상블라주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염소와 타이어의 결합은 오브제의 결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명성을 위협하는 산업 사회라는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37 ~ 42] (인문 고전소설 복합) (가) 『우화소설의 세계』 / (나) 작자 미상, 「서대주전(鼠大州傳)」 / (다) 작자 미상, 「별주부전(鼯主簿傳)」

(가) 우화소설의 세계

우화소설이 동물을 의인화한 소설이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잘못된 본성과 봉건 사회의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나) 작자 미상, 「서대주전(鼠大州傳)」

귀를 의인화한 인물인 서대주를 통해 조선 후기 관리들의 부정한 행태와 무능력함을 풍자하고 있는 고전소설이다.

(다) 작자 미상, 「별주부전(鼯主簿傳)」

토끼와 자라, 용왕 등의 인물을 통해 지배층의 횡포에 대해 교묘한 피로 맞서는 민중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고전소설이다.

37. [출제의도] 우화소설의 개념과 특징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우화소설의 전형적인 서사 구조가 계층 간의 갈등과 해소라는 점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첫째 문단에서 우화소설은 동물을 의인화한 이야기이며, 크게 송사형과 쟁론형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둘째 문단에서 우화소설은 구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③ 넷째 문단에서 우화소설은 인간의 부정적인 면모나 봉건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풍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첫째 문단에서 쟁론형 우화소설은 시비를 다투는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둘째 문단에서 우화소설은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소설을 감상한다.

(나)에서 타남주가 귀양을 간 것은 원님의 무능한 판단으로 인한 것으로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 의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나)에서 서대주의 모습을 뽐족한 입이 오물거리고 두 귀가 발쪽거린다고 묘사한 것은 (가)에서 설명한 ‘동물의 외형’과 관련이 있다. ③ (나)에서 서대주의 자손들이 도적질을 하다가 사람들에게 양갓음을 당한다고 한 것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다)에서 토끼와 용왕의 대립 구도를 설정한 것은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서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토끼가 하체에 간 이 출입하는 특별한 구멍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은 토끼가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데서 나타나는 ‘기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9.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을 파악한다.

② (나)의 서대주는 도적질을 하고 원님을 속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인물이다. 이 장면에서는 서대주

가 타인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간산한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의 ‘수졸’은 서대주에게 뇌물을 받는 부패한 관리를 나타낸다. ③ (나)의 ‘원님’은 서대주의 무고를 믿고 잘못된 처결을 하는 무능한 판관을 나타낸다. ④ (다)의 ‘토끼’는 부귀영화를 위해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인간을 나타낸다. ⑤ (다)의 ‘용왕’은 자신의 목숨을 위해 토끼의 간을 빼앗으려는 데서 민중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자를 풍자한다고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나)는 마지막 문단 서대주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논평하는 부분에서, (다)는 토끼가 자라에게 속아 용궁을 끌려온 처지에 대해 ‘세상에 턱없이 명리를 탐하는 자는 가히 이것을 보아 징계할지로다.’라고 평하는 부분에서 서술자의 주관적 논평을 확인할 수 있다.

41.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② [B]는 토끼가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간을 욕지에 두고 왔다고 용왕에게 말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선행을 나열하며 남들과 다른 면모를 역설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A]에서는 서대주가 타남주가 자신을 도리에 어긋나게 송사를 했다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③ [A]에서는 타남주가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점을, [B]에서는 자신의 간이 영약이 된다면 자신을 특수한 존재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④ [A]와 [B]는 각각 원님과 용왕에게 자신의 말을 믿게 하려는 설득의 의도를 담고 있다. ⑤ [A]는 서대주가 경어체를 사용하며 ‘저는 본시 대대로 부유하여’, ‘밝게 살피시는 원님께’라고 말하는 데서, [B]는 ‘천송의 임금이시오 소토는 산중의 조그마한 짐승’이라고 언급하는 데서 청자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양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인물의 행동을 한자성어로 평가한다.

토끼는 자신의 간을 내놓으라는 용왕의 요구에 태연하게 간을 욕지에 두고 왔다고 말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토끼는 ‘그때그때 처한 형편에 맞추어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을 뜻하는 임기응변(臨機應變)의 지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교육지책’은 ‘적을 속이기 위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꾸미는 계책’을 뜻한다. ③ ‘와신상담’은 ‘설에 누워 쓸개를 맞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려고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④ ‘권토중래’는 ‘한번 패하였다가 세력을 회복하여 다시 쳐들어옴.’을 뜻한다. ⑤ ‘토사구팽’은 ‘토끼가 잡혀 죽으면 사냥개는 쓸모없게 되어 살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뜻한다.

[43 ~ 45] (현대시) (가) 정지용, 「유리창(琉璃窓)1」 / (나) 나희덕, 「성(聖) 느티나무」

(가) 정지용, 「유리창(琉璃窓)1」

투명하지만 차단성을 지닌 ‘유리’의 이중적 속성을 통해,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픔과 애절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나) 나희덕, 「성(聖) 느티나무」

번개에 맞아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던 느티나무가 봄이 되자 다시 잎을 틔우며 생명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통해, 느티나무, 나아가 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외경을 형상화하고 있는 시이다.

43. [출제의도]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나)는 죽은 줄 알았던 고목이 ‘봄’이 되어 새 잎을 내는 모습을 통해 나무의 생명력에 대한 예찬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시상 전개에 기여를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설의적 표현이 아닌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하며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어린거린다’, ‘파다거린다’, ‘부딪히고’, ‘날려갔구나’와 같은 시어가, (나)에서는 ‘밀어올리며’, ‘꺼낸다’, ‘피워내다니’, ‘내놓는다’, ‘퍼들고 있다’ 등의 시어가 동적 심상을 일으키고 있다. ④ (가)에는 인간과 자연과의 대비가 없다. (나)는 ‘느티나무’를 ‘그’라고 의인화해 그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지 않았다. 단, (가)의 경우 마지막 행에서 죽은 자식을 ‘너’라 지칭하며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를 통해 자식을 잃은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44. [출제의도] 두 시의 소재상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에서 화자는 유리로 안과 밖이 차단된 공간에서 유리창에 서린 성예를 보며 죽은 자식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유리 너머의 세계는 죽은 자식이 있는 세계이다. 유리가 지닌 투명성으로 인해 화자는 창밖을 응시하며 죽은 아이와 소통을 시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차단성으로 인해 단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나)에서 번개에 맞아 탄 검게 된 나무의 모습은 시커먼 아궁이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죽은 듯하나 스스로 잎을 내며 다른 자연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고목의 모습은 스스로를 태워 불을 피우고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아궁이의 속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나)에 대한 감상의 핵심은 고목의 속성에서 아궁이의 속성을 발견하고 그 속성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두 시의 소재상의 공통점은 ‘유리’와 ‘아궁이’의 이중적 속성, 즉 ‘유리’의 투명하지만(소통) 차단된(단절) 속성과 ‘아궁이’의 태워야만(소멸) 불을 피울 수 있는(생성) 속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발이 묶인 채’ 있는 고목은 땅에 뿌리를 내리며 서 있는 고목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궁이가 지닌 소멸의 이미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⑤ ‘오래오래 제 살을 달여 내놓는다’는 것은 고목이 불에 탔으나 이듬해 봄, 끝내 잎을 피워내며 생명체를 품어 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아궁이’가 무엇인가를 태우며 불을 피워야 하고, 스스로 뜨겁게 달구어져야 그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고목’이 자신의 살을 달이는 모습에서는 소멸의 이미지를, 이를 내놓는 모습에서는 생성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두 시의 공통점을 파악하여 감상한다.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는 뿌리를 땅에 박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나무를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푸른 날개’를 뻗고 있는 나무는 그 왕성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새’는 나무의 생명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 자식을 잃은 화자의 이중적 심리를 드러낸다. 자식을 잃은 상황이므로 화자는 깊은 고독과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나 유리에 어린 영상을 죽은 자식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유리를 어루만지는 시간만큼은, 창밖 죽은 자식이라 생각되는 그 별을 응시할 수 있는 순간만큼은 소통과 만남의 시간인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그리움과 먹먹함에 순수하게 빠져들 수 있다.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화자가 그림고 보고 싶은 자식의 모습을 유리에 어린 영상을 통해서나마 느끼고 만날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 일면 몹시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일면 눈물겹게 그림고 황홀한, 그 형언할 길 없는 상충의 심리, 모순된 마음을 화자는 ‘외롭고 황홀한 심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